2016 년 제 2 차 동방경제포럼 사업결과

2016 년 9 월 2-3 일에는 3,500 명의 참가자들과 1,100 명의 언론인들이 모인 동방경제포럼이 진행되었다. 외국 참가자들은 **56 개국**을 대표하는 참가자들이었다. 일본 (246 명), 중국 (227 명), 대한민국 (128 명) 등 국가 대표자들이 가장 많았다. 포럼의 슬로건은 '극동을 열기'이다.

9 월 2 일에 동방경제포럼의 공식적 개막식 범위 안에서 극동연방관구주재 러시아연방대통령 전권대표 유리 트루트네프 내각 부종리 겸 동방경제포럼 조직위원회 위원장은 포럼 참가자들에게 인사말을 걸었다.

유리 트루트네프씨는 '동방경제포럼은 극동이 보다 빨리 발달하기 위해서 진행되는 것이다. 성장률, 새로운 투자 프로젝트의 개수, 지역으로의 투자유입 등을 보면 이 과정이 시작했다고 말할 수 있다. 2 – 3 년 후에 체계가 확립되어 종합적이며 경쟁력 있는 것이 되겠다고 희망한다. 우리는 지역 개발이 맨 먼저 여기서 기업체들을 창업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이해한다. 그들이 계속 그러기 위해서는 극동이 개발되고 있고 여기서 장말 일하기가 보다 좋다는 점을 그들이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1. 2016 동방경제포럼의 실무일정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연방대통령, 박근혜 대한민국대통령, 아베 신조 일본 총리 등이 참가하는 '극동을 열기'란 본회의는 포럼의 중심행사가 되었다. 본회의 방송은 유러비전회원채널 76 개와 일본 및 대한민국 채널이 수신하고 있었다.

포럼 범위 안에서 토론은 다음과 같은 3 가지 기본적인 방향에 따라 전개했다:

- '**투자자들을 위한 기회**' (회의 17 회);
- '**투자자들을 위한 특혜**' (회의 11 회);
- '**극동개발: 아태지역을 위한 이득과 새 기회**' (회의 16 회);

포럼의 범위 안에서는 **국가간 비즈니스 대화 5 개**('러시아 대 중화인민공화국', '러시아 대 대한민국', '러시아 대 독일', '러시아 대 남아시아국가연합'과 '러일비즈니스포럼 등) **전략적 회의 6 개**(회의에서는 참가자들이 입법 및 집행권력기관들의 대표자들과 매장지에 대한 투자자들의 접근, 지역개발도구, 북극해항로의 새로운 경제적 모델 등 지역의 미래 개발에 대한 주제들을 논의했다)가 진행되었다.

실무프로그램의 범위 안에서는 포럼에서 투자 총액이 1.5 조 루블이 되는 34 개의 투자프로젝트에 대한 프레젠테이션이 진행되었다.

포럼 중에 다음과 같은 행사가 별도로 진행되었다:

- 러-중 재정위원회 회의;
- '동방벡터'란 공익협회 회의;
- '러시아 대 남아시아국가연합' 대학교 포럼;
- APEC 교육대회.

2. 참가자

금년도에 포럼에 **러시아 및 외국 비즈니스의 대표자 978 명**이 참가했다**.**

그들 중에는 다음과 같은 분들을 포함하여 **러시아회사들의 수뇌자 207 명**이 참가했다:

- **'가스프롬'개방식주식회사 알렉세이 밀레르 이사장;**
- **'스베르반크(저축은행)'개방식주식회사 게르만 그레프 회장 겸 이사장;**
- **'루스기드로'개방식주식회사 니콜라이 쑬기노프 이사장 겸 대표이사;**
- **'노바텍'개방식주식회사 레어니드 미헬손 이사장;**
- **'로시이스키예 세티'개방식주식회사 올레그 부다르긴 대표이사 겸 이사장;**
- **'스콜코보'재단의 빅토르 벡셀베르그 회장;**
- **'엔 + 매니지먼트'유한책임회사 막심 소코프 대표이사;**

- **'브네쉬코놈은행'개발 및 대외경제활동은행 공사 세르게이 고리코프 이사장;**
- **'폴류스'개방식주식회사 파벨 그라쵸프 대표이사;**
- **'로스나노'유한책임관리회사 아나톨리 추바이스 이사장;**
- **'그루파 숨마'유한책임회사 지야윗딘 마고메도프 이사장;**
- **'트란스마슈홀딩'폐쇄식주식회사 안드레이 보카레프 회장;**
- **'러시아우편'연방국영단일공사 드미트리 스트라쉬노프 대표이사;**
- **'로스텔레컴'개방식주식회사 세르게이 칼루긴 회장 겸 이사장;**
- **'메첼'개방식주식회사 이고리 쥬진 이사장;**
- **'에르-파름'폐쇄식주식회사 알렉세이 레픽 이사장;**
- **'시부르'유한책인회사 드미트리 코노프 이사장;**
- **'RFPI'유한책임관리회사 키릴 드미트리예프 대표이사;**
- **'FGK UES'개방식주식회사 안드레이 무로프 이사장.**

그리고 다음과 같은 분들을 포함하여 영국, 버진제도, 인도, 중국, 말레이시아, 네덜란드, 저지 섬, 대한민국, 미합중국, 태국, 스웨덴, 일본 등과 같은 국가들에서 **외국회사 수뇌자 94 명**이 참가했다:

- **영국의 BP 사의 Robert Dudley 대표이사;**
- **일본의 미쓰이물산 이이지마 마사미 회장;**
- **일본의 JGC Corporation 시게히사 요시히로 명예회장;**

- **인도의 SUN Group Shiv Vikram Khemka 대표이사 겸 부이사장;**
- **미국의 The Boston Consulting GroupHans-Paul Bürkner 회장;**
- **대한민국의 한국가스공사 이승훈 회장 겸 대표이사 등이다.**

포럼에는:

- 부총리 4 명,
- 장관 14 명,
- 연방청장과 연방국장 16 명,
- 러시아연방주체 주지사 10 명 등이 참가했다.

또한:

- 라오스 에너지산업과 광업부 함마니 인티라트 장관,
- 중국 수자원부 레이 첸 장관,
- 몽골 외무부 문 오질 첸드 장관,
- 중국의 전국인민대표자회의 상임위원회 첸 창지 부위원장 등이다.

3. 대중매체

제출된 신청서 총수: **1113** 개(러시아: 736 개, 외국: 377 개).

러시아를 제외하여 **18 개국**(오스트리아, 벨라루스, 영국, 베트남, 독일, 홍콩, 인도, 이라크, 카메룬, 중국, 뉴질랜드, 대한민국, 미합중국, 터키, 프랑스, 체코, 스위스, 일본)에서 왔다.

4. 자원봉사자

포럼의 준비사업에는 러시아의 여러 지역에서 온 **자원봉사자 500 명**이 참가했다.

5. 전시회

포럼에는 다음과 같은 전시회들이 진행되었다.

1. '극동에 어서 오십시오'란 전시회는 선도개발구역, 투자를 위한 기회, 진출도구, 최초의 레지던트, 극동연방관구의 중견산업분야, 국제협력정책, 투자할 가능성, 대 지역의 투자를 위한 거대 프로젝트 등이 소개되었다.

전시회에는 다음과 같은 연방집행권력기관의 부스가 배치되었다:

- 러시아연방 자엽부원생태부(러스네드라),
- 러시아연방농업부,
- 러시아연방임업청,
- 러시아연방어업청,
- 러시아연방관광청,

- 러시아연방교통부,
- 러시아연방어업청,
- 러시아연방공업통상부.

2. '극동. 야생자연지역'이란 전시회는 지역의 투자상 매력의 요인으로서의 자연을 소개하는 것이다. 희귀동물과 독특한 풍경보존, 생태관광의 발달 등이다.

3. 2016 동방경제포럼 파트너들의 실무 구역들은 포럼의 공간을 확장하고 동방경제포럼의 파트너 회사들의 지위와 성취를 시각화하는 것이다.

4. 극동개발기구와 선도개발구역들의 전시회.

블라디보스톡 자유항, 극동개발재단, 극동개발공사, 선도개발구역들은 선도개발구역들, 투자를 위한 기회, 진출도구 및 최초 레지던트들의 성공이야기를 소개한다.

파트너들의 부스

파트너들의 전시회에서는 루스기드로, VTB, 폴류스졸로토, 마쯔다, 러시아철도, 노릴수키니켈, 나치오날리나야 히미체스카야 그루빠 등 회사들의 부스가 소개되었고 가스프롬, 알로사, 로스네프치, 콜마르

회사들의 실무구역이 설정되었다. 자바이칼지방과 러시아수출센터도 자기들의 부스를 소개했다.

협정조인

제 2 차 동방경제포럼에서 **201 개의 협정이 조인되었고 그 예상되는 총 금액은 1.63 조루블이다.**

그것들 중의 가장 대규모적인 협정은 다음과 같다:

'아무르스크가스화학단지'란 투자프로젝트실현에 관한 러시아극동개발부와 '시부르홀딩'개방식주식회사 사이의 의향서, 투자규모: 5 천억루블;

극동개발재단과 '나치오날리나야 히미체스카야 그루빠' 폐쇄식주식회사 사이의 연해주에서의 화학비료생산단지건축에 관한 협정, 투자규모: 3705 억루블;

러시아극동개발부와 '우카 폴류스' 유한책임회사사이의 '나탈킨스코예 금광매장지에 기초하여 광갱 및 가공 기업 건축'이란 투자프로젝트 실현에 관한 협정, 투자의 규모: 985 억루블;

러시아극동개발부와 (주) '알로사" 사이의 '베르흐네-문스코예 광석지대 매장지에서의 다이아몬드광산기업'이란 투자프로젝트실현에 관한 협정, 투자규모: 630 억루블.

다음과 같은 협정들도 중요하다:

선도개발구역들을 추진하고 선도개발구역들에 일본투자자들을 유인하기 위한 러-일 플랫폼 창출에 관한 극동투자유인 및 수출지원청과 Japan Bank for International Cooperation (JBIC) 사이의 협정;

러-중 농업재단관리회사가 아무르라그로홀딩사 및 라티미르사와 체결한 179 억루블어치 최초의 트자협정서 2 건;

극동중소기업을 위한 특수대출프로그램을 실현하는 제 1 단계에 관한 극동개발재단과 스베르반크 사이의 협정, 금액: 30 억루블;

루스기드로와 일본의 미쓰이사 사이의 기술협력에 관한 협정 등이다.

극동에서의 '다이아몬드 센터'운영.

'알로사'개방식주식회사와 'KGK Diamonds Private Limited'는 **극동에서의 '다이아몬드 센터' 부지에서 KGK 의 보석각면기업창설에 관한 협정을 서명했다. 생산운영시작은 2016 년말이다.**

프로젝트는 보석가공 및 국제무역을 위한 장소가 된다. 다이아몬드 클러스터에는 다이아몬드 원료를 채취하며 판매하는 회사들, 다이아몬드 및 보석제품 제조업체, 보석학 실험실, 은행, 보험사, 특수운송회사, 국가기관들로서는 특수 통관소와 정부의 통제기관 등이 포함될 것이다.

KGK 가 새로 설립할 법인은 자연 금강석을 다음과 같은 범위에서 면내기를 확보해야 할 것이다:

- 2017-2018 년: 6,000 캐럿;

- 2018-2019 년: 9,000 캐럿;

- 2019-2020 년: 12,000 캐럿;

- 2020-2021 년 이후: 15,000 캐럿 등 등이다.

포럼 중에 별도로 유라시아 다이아몬드 센터 범위 안에서는 **블라디보스톡에서 제 1 차 다이아몬드 및 보석 경매가 진행되었다**. 인도, 중국 및 일본 구매자들에게 **1825.4 만 미국달러(11.86 억루블)어치 다이아몬드와 보석이** 판매되었다

경매결과:\ **특수치수의 다이아몬드 경매**

경매에는 1,098.53 캐럿짜리 19 개의 품목이 제시되었고 최초가격은 9,545,000 미국달러였다. **모든 품목이 다 판매되었다!**

총 금액은 1463.6 만 미국달러*(9.51 억루블)*가 되었다

가장 큰 무게가 401.97 캐럿이 되며 최초가격이 200 만 달러가 되는 3 번 다이아몬드는 3,050,050 미국달러에 판매되었다

무게가 125.79 캐럿이 되며 최초가격이 2,800,000 달러가 되는 가장 비싼 다이아몬드는 3,640,717 미국달러에 판매되었다

보석경매

경매에는 136.06 캐럿짜리 23 개의 품목이 제시되었고 최초가격은 $2,782,942 가되었다. 모든 품목이 다 판매되었다 ! 총금액은 $3,618,000 이다.

청 금액은 361.8 미국달러가 되었다

최초가격이 $648,025 가 되는 40.25 캐럿짜리 가장 큰 것은 $706,777 에 판매되었다.

최초가격이 $913,950 가 되는 20.31 캐럿짜리 가장 비싼 보석은 1,288,888 미국달러에 판매되었다

'보스호드'투자체계출범

극동 및 러시아금융시장 현대 발달사에 있어서의 중요한 이정표이다. '보스호드' 투자체계는 유가증권발행자들과 투자자들을 위한 빠르며 편리하며 사용자 친화적인 플랫폼인데 거래체결은 컴퓨터나 모바일 장치를 사용하여 몇 번 클릭만으로 이루어진다. 용도는 선도개발구역과 블라디보스톡 자유항의 범위 안에서 실현되는 것을 포함하여 극동지역의 빨리 발달하고 있는 회사와 프로젝트에 주식자본과 채권자본을 유인하는데 있다.

'보스호드' 투자체계는 새 형의 회사들에 재정시장에 대한 접근을 주며 새 형태의 투자자들을 유인할 것이다. **이미 16 개의 회사들은** 유가증권발매를 위한 신청서를 **제출했는데** 그들의 프로젝트는 재단에서 전문적 감정에서 심의도;는 중이다.

하루 만에 자연인들인 개인투자자들은 **1.43 억루블어치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모스크바, 페테르부르크, 볼고그라드, 우파 등 러시아 33

도시들의 주민들은 하바로프스크의 새로운 국제공항 지상활동에 관한 주된 운영회사인 '하바롭스키 아에로포르트'개방식주식회사의 자회사인 '아비아터미날'사의 채권에 저축된 돈을 투자했다.

초고: 러시아에서 개인적인 저축범위는 23 조루블이며 중국은행들에서는 20 조달러정도이다. '보스호드' 투자체계를 통해서 이 대괴를 유인하도록 하겠다.

6. 스포츠 및 문화일정

포럼 스포츠일정 범위 안에서 시베리아호랑이와 아무르표범의 보호를 위한 자선질주와 platu 급 요트경주가 진행되었다.

동방경제포럼 문화일정 범위 안에서 '극동의 거리' 축제가 진행되었고 마린스키 극장 오페라 및 발레 솔로이스트들이 참가하여 '오케안' 전로시아 아동 센터 피교육자들을 위하여 '장군의 교향곡'이란 콘서트가 자선행사로서 진행되었다. 포럼 기간에는 러시아에서 생물학적 다양성을 보존하며 희귀동물을 보호하는 프로그램을 지원하기 위한 'Help Nature'이란 자선경매가 수행되었다.

포럼이 진행되는 매일에는 마린스키 극장 연해주 지점, 연해주 필하모니와 연해주연극극장의 레파토리가 준비되었다.

7. 안보

2016 동방경제포럼의 안보에 러시아 내무부 경찰인원 3,500 명 이상 동원되었다. 러시아 재난관리부는 1,200 명의 인원과 장비 200 대정도 재난에 대한 안전과 수상안전을 보장하고 있었다.

8. 교통 (비행과 숙박)

비행

포럼의 공식적인 항공운송회사는 아에로플로트사이다. 동방경제포럼은 대표자들을 위하여 '모스크바 – 블라디보스톡 – 모스크바' 항로에 표 1,500 장을 특별히 예약했다. '모스크바 – 블라디보스톡'항공편에는 2016 년 8 월 30 일부터 9 월 1 일까지, '블라디보스톡 – 모스크바' 항공편에는 2016 년 9 월 3 일부터 5 일까지 참가자의 회원계정에 로그인하여 '항공표'란 메뉴에서 좌석위치를 예약할 수 있었다. 언론인들을 위하여 300 석짜리 전세 비행기가 기획된다.

자동차교통

마쯔다사는 포럼 참가자들에게 Mazda CX-5 호 50 대와 Mazda 6 호 100 대의 자동차를 제공했다.

호텔숙박

참가자들, 언론인들과 인원을 위하여 극동연방대학교 캠퍼스를 포함하여 블라디보스톡 호텔들에서 호텔방 5,500 칸이상 예약되었다.

9. 인프라

동방경제포럼은 아약스 만(루스키섬)의 해변가에 위치한 극동연방대학교의 현대적인 캠퍼스에서 진행된다. 극동연방대학교의 캠퍼스는 러시아 동부와 아태지역에서 대규모적인 국제행사를 진행하기 위한 가장 유명한 장소이다. 극동연방대학교는 가장 중요한 장소가 된다. 블라디보스톡의 국제공항(크네비치)부터 극동연방대학교의 캠퍼스까지 길은 45 분정도 걸린다.

실무행사를 수행하기 위한 5 개의 회의실들의 총 면적은 5,500 평방미터가 되며 전시장 공간 면적은 9,000 평방미터이며 회의실 수용인원은 100 명부터 900 명까지다.

캠퍼스의 호텔단지는 241 칸 호실씩 가지는 5 개 건물들로 구성된다. 호텔건물마다에는 귀빈실 6 칸, suite 급 호실 13 칸, 일반호실 222 칸이 있다.

호텔 리셉션은 24 시간 동안 운영되고 인원은 표를 예약하거나 택시를 호출하는데 도와줄 것이다. 호텔에는 편리한 라운지구역과 보관실이 있다. 캠퍼스의 모든 건물은 장애인들의 욕구를 고려하여 설계된 것이다. 손님들의

편의를 위하여 각 건물의 로비에는 현금인출기, 지급단말기와 자판기가 배치되어 있다.

동방경제포럼의 손님들을 위하여 축구장, 정구장, 경주로 등 실내 및 야외 운동장, 연습기가 설치된 운동실과 피트니스를 위한 운동실, 실내 수영장, 큰 운동실 등이 운영되고 있다.

10. 정보적 서비스

금년도에 프럼 참가자들에게 다음과 같은 정보적 서비스가 제기되었다:

- 모바일 장치를 위한 응용프로그램(포럼 일정에 대한 정보와 언론행사일정에 대한 정보를 받을 수 있게 하며 현장에서 내비게이션을 사용할 수 있게 하며 회의방송을 관람할 수 있게 하며 메시지를 교환할 수 있게 하며 약속을 정하며 포럼에서 자기의 개인적인 사업일정을 형성시킬 수 있게 하는 것).
- 동방경제포럼의 사진 은행 (실무 및 문화 프로그램에 관한 고해상도 사진의 보기 및 다운로드. 서비스는 모바일 장치를 통해서 보기에 적응된 것이다).
- 포럼회의와 TV 채널들의 동영상 방송(동방경제포럼이 진행되는 모든 건물들에서 포럼의 본회의와 중견행사들의 생방송 그리고 포럼에 대한 최대 러시아 및 외국 TV 채널들의 동영상).

• 포럼 웹사이트에서 2016 동방경제포럼 실무 프로그램의 온라인 방송. (행사가 끝난 후에 방송 아카이브에 대한 접근은 동방경제포럼의 공식적인 웹사이트에 있을 것이다).

• 포럼 중에 '로스콩그레스'의 개방 스튜디오가 운영되고 있었다. 스튜디오란 비즈니스 및 정치 리더, 여러 전문가들과의 대화다. 포럼이 끝난 후에 이 자료는 공식적인 웹사이트와 온라인 네트워크에서 게재될 것이다.

• 문자메시지 통보 등이다.

11. 파트너

포럼을 준비하는 범위 안에서 다음과 같은 단체들을 포함하여 29 개의 파트너들이 자기 참가를 확인했다:

1. 타이틀 파트너:

1.1. 로스네프치

1.2. 루스기드로

1.3. 가스프롬

1.4. 가스프롬뱅크

2. 공식 파트너:

2.1. 알로사

2.2. VTB

2.3. 콜마르

2.4. 노릴수키니켈

2.5. 러시아철도

2.6. 폴류스졸로토

2.7. 나치오날리나야 히미체스카야 그루빠

2.8. 로시이스키예세티

2.9. FGK

2.10. 로사톰(러시아원자력공사)

2.11. 스베르반크(러시아저축은행)

3. 실무일정에 관한 파트너:

3.1. 델로바야 로씨야

3.2. 노바텍

3.3.루스아그로

3.4. EN Plus

3.5. 사할린 Energy Investment Co., Ltd.

4. 조직상 파트너:

4.1. 보스토치늬 항만

4.2. 시그마

4.3. EVRAZ

4.4. Coca-Cola

4.5. ESN

4.6. 사할린 Energy Investment Co., Ltd.

4.7. 시베리아석턴에너지회사

5. 포럼의 공식적 자동차:

5.1. 마쯔다

6. 포럼의 공식적 항공사

6.1. 아에로포르트

12. 행사 주최자

행사의 운영회사인 '로스콩그레스' 재단은 2007 년 페테르부르크 국제경제포럼을 주최하고 진행하기 위해서 설립되었다. 2015 년 12 월에 개편된 후에 현재 이름을 지니게 되었다. 재단의 목적은 경제적이며 사회적인 성향을 지닌 대회 및 전시회 행사를 주최-수행함으로써 허시아 경제적 잠재력을 발달하며 이미지를 강화하며 이 행사들의 내용부분을 형성시키며, 단체들과 회사들에 전문적 컨설팅 및 정보적 지원을 제공하며 러시아 및 전세계 경제적 일정의 제 문제를 분석하며 조명하는데 있다.